



# 일군들을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키워주시어

절세위인들의 품은 이 땅위에 애국자의 대부대를 키워내는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다.

한생의 시작도 칼도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광성으로 빛내여가고 있는 한 남성일군의 삶은 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금 새겨주고 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자강도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정훈실동무는 아버지수령님께서 품을 키워 키우신 일군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잘 도와주고자 하시면서 그가 청춘의 활력에 넘쳐 일을 더 잘하라고 인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품속에서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 2종로력영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자라난 그의 빛나는 삶을 돌이켜보노라 면 몇몇진 자강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던 길에 전천군공업관리소를 친히 찾으신 그가 변함없이 인민의 참된 총복으로 살도록 따스히 이끌어 주시던 아버지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가슴찌릿이 어려온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회의 참된 옹호 후손대대의 영원한 행복은 소위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울 수 있습니다.」

주제 96(2007)년 8월 어느 날이었다.

전천군공업관리소에서 새로 건립한 아버지수령님의 현지지도사적비 앞에 도착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훈실소장을 위대한 논길로 바라보시며 이제는 잃지 않는다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건강하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이시는데 그러면 됐다고 하시며 사적비로 향한 계단을 오르시었다.

경건한 안색으로 한자한자 현지지도 사적비의 비문을 읽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적비가 형식도 좋고 내용도 좋다고, 전천군공업관리소에서 현지지도사적비를 잘 만들어 세웠다고 치하해주시었다. 그러시더니 사진전공업품상접촉으로 시신을 돌리시고 상점에 갖든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었다.

이어 새로 꾸러놓은 혁명사적교양실에도 둘러선 그이께서는 사진문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시다가 어느 한 사진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그 사진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이곳 상업관리소종업원들을 사랑의 환眸에 안으시고 찍으신 기념사진이었다.

사진에서 이속도록 눈길을 매지 못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주 뜻깊은 사진이라고 하시면서 오늘 보나 전천군공업관리소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교양적의가 있게 잘 꾸렸다고, 혁명사적교양실에는 전천군공업부문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령도업적이 집대성되어있다고, 앞으로 종업원들속에서 혁명사적교양실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믿음어린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고귀한 가르침을 새겨갈 정지사업을 할 때에

이속과 전천공업품상점에 둘러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신발매대, 학용품매대, 화장품매대에 있는 상품들을 눈여겨보시다가 일군들에게 상점

에서 우리 가정수첩을 지금도 계속 리용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치하하시었다.

그이의 과분한 치하를 받아안은 정훈실소장의 가슴속에서는 또다시 이쁨할수 없는 격정과 함께 뜨거운 추억의 물결이 일렁이었다.

수십년전 이곳 군의 자그마한 산골마을 상점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만들어 운영하고있던 주먹매대를 보시며 좋은 일수 한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그에게 봉사구역의 주민세대를 얼마나 되며 매 가정들에서 어떤 상품을 요구하는지 알고있는가고 물으시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을 봉사해 주는것으로 만족하고있던 그는 선뜻 대답을 올릴수가 없었다.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는 동무들이 일을 잘하지만 손님들이 무엇을 얼마나 요구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그때는 상점에 오는 손님들의 수요만을 두고 한낱 말씀이 아니라 하시면서 차근차근 일깨워주시었다.

상점일군들은 주민들의 상품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근거하여 상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느 집에는 식구가 몇인데 술가락은 몇개 모자라고 신발은 누가 없는가 하는것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일을 해야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가져다 팔아주는 것이 상점일군의 임무이다. ...

그 후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인민반담담게를 내

내며 기초하여 가정들을 찾아다니며 상품에 대한 요구를 직접 듣기도 하고 세대별매대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 매 가정의 생활형편과 수요를

고려하면서 상품봉사활동을 벌려나갔다. 주민들은 기뻐서 어쩔줄 몰라하며 우리 판매원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가정수첩은 이렇게 인민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깊이 마음써오신 아버지장군의 숭고한 인민사랑에 의하여 태어났던것이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난 어느날 이곳을 또다시 찾으신 장군님께서는 우리 가정수첩을 보아주시며 아주 좋은 생각을 하였다고, 우리 가정수첩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하고있는것은 사회주의사업의 좋은 본보기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우리 가정수첩을 더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방도를 다시금 환히 밝혀주시었다. ...

이속과 상점매대들을 기쁨속에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원로기 지전경도앞에 이르시었다. ...

정훈실소장이 그이께 전경도를 가리키드며 장풍덕원로까지도 뽕밭도 있고 강병이밭, 남새밭도 있다고 보도드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원로기지전경도를 보니 전천군공업관리소의 원로기지가 볼만합니다.」

원로기지에 새겨진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수고를 헤아려보시는듯 오래도록 전경도를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강병이밭장풍덕도 시신을 옮기시며 강병이는 얼마나 생산하고 기름은 얼마나 냐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지난 20여년간 수천의 강병이를 생산했다는 것과 지난해에는 정보생산 10여t을 냐고 기름은 헤마나 수천t이상 냐고 감지높이 보고올

렸었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천군공업관리소에서는 협동농장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짓고있다고, 상업관리소종업원들이 수고를 많이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 값있는 평가는 누가 보진말건, 알아주진말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강그러 다 바쳐가는 정훈실소장과 이곳 종업원들에게 안겨주시는 아버지장군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표시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에 서 많은 세기를 받아 인민군대에도 보내주고 기계공장노동계급에게도 보내준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아시고 정말 좋은 동무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모두를 한몸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전천군공업관리소에서

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기 바란다라는 사랑과 믿음넉넉 축복을 안겨주시고 또다시 마나던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정훈실소장과 전천군공업관리소 종업원들에게 들려주신 아버지장군의 대대같은 사랑과 믿음의 일부이다.

인민이기는 상스러운 부름앞에 누구나 참된 총복으로 아름답게 살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의 거룩한 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의하여 이 땅위에 꽃피어 빛나고있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애국자, 인민의 참된 총복이 수없이 성장하고있기에 부강조국건설의 앞날은 밝고 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과학성은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주제 15(1926)년 8월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속에서 활동하시던 때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화성의속에서는 전투경험이 있는 독립군대원을 초청하여 그의 무훈담을 듣는 모임을 조직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속의 유명한 교원, 학생들과 함께 이 모임에 참가하시었다.

모임에서 출연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몇해전 왜놈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순경놈을 쫓아낸 사실과 독립군활동에서 중요 역할을 국내에 자주 들어가 왜놈을 한눈이라도 더 쳐다보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의 무훈담은 화성의속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은 독립군모두가 저렇게 싸우면 왜놈들을 몇년안으로 몰아낼것 같다고 하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한바탕 싸우고싶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었다.

이날 공부를 끝마치고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낮에 있는 모임에 대하여 화제를 돌리시며 독립군청년들이 왜놈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국내에 들어가 왜놈수사들을 쫓아낸것은 용감한 행동이라고 말할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공업적인 투쟁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었다.

따뜻의 말씀에 학생들은 어리둥절했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

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놈을 한두놈씩 쫓아내는 수공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는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러 한 투쟁방법을 버리고 2천만 인구의 힘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전진족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방법을 내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라를 찾는 싸움에서 기수가 되여야 할 우리 청년들에게 훌륭한 사상과 투쟁방법을 배워줄 대신 수공업적인 투쟁방법만을 내세우는것은 잘된 일일것 같다고 하시며 학생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게 말씀은 화성의속에서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었을뿐만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의 사상과 견해의 제한성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생들을 돌려보시며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은 독립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바치는 성실하고 훌륭한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인민을 믿고 이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전진사상대로 깨우치고 묶어세워 그들의 힘에 의거해서 독립운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독립군대원의 무훈담을 듣고 그 방법대로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설 생각을 품고있던 학생들은 새로운 투쟁의 길을 모색해나가시며 올바른 투쟁방법론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성과 탐구심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부르려는 학생들은 전진족이 굳게 단합하여 싸우는 방법만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본사기자 립 정 호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 물소 밟혀주신 투쟁방법론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과학성은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

주제 15(1926)년 8월초 위대한 수령님께서 화성의속에서 활동하시던 때에 있는 일이다.

어느날 화성의속에서는 전투경험이 있는 독립군대원을 초청하여 그의 무훈담을 듣는 모임을 조직하였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의속의 유명한 교원, 학생들과 함께 이 모임에 참가하시었다.

모임에서 출연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몇해전 왜놈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고 순경놈을 쫓아낸 사실과 독립군활동에서 중요 역할을 국내에 자주 들어가 왜놈을 한눈이라도 더 쳐다보아야 한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의 무훈담은 화성의속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모임을 통하여 학생들은 독립군모두가 저렇게 싸우면 왜놈들을 몇년안으로 몰아낼것 같다고 하였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한바탕 싸우고싶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것처럼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으시었다.

이날 공부를 끝마치고 학생들과 자리를 같이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낮에 있는 모임에 대하여 화제를 돌리시며 독립군청년들이 왜놈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국내에 들어가 왜놈수사들을 쫓아낸것은 용감한 행동이라고 말할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공업적인 투쟁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었다.

따뜻의 말씀에 학생들은 어리둥절했다. 영문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

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왜놈을 한두놈씩 쫓아내는 수공업적인 투쟁방법으로써는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러 한 투쟁방법을 버리고 2천만 인구의 힘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전진족이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방법을 내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라를 찾는 싸움에서 기수가 되여야 할 우리 청년들에게 훌륭한 사상과 투쟁방법을 배워줄 대신 수공업적인 투쟁방법만을 내세우는것은 잘된 일일것 같다고 하시며 학생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시게 말씀은 화성의속에서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었을뿐만아니라 민족주의자들의 사상과 견해의 제한성을 똑똑히 알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생들을 돌려보시며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은 독립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바치는 성실하고 훌륭한 인민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런 인민을 믿고 이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전진사상대로 깨우치고 묶어세워 그들의 힘에 의거해서 독립운동을 벌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독립군대원의 무훈담을 듣고 그 방법대로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 떨쳐나설 생각을 품고있던 학생들은 새로운 투쟁의 길을 모색해나가시며 올바른 투쟁방법론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성과 탐구심에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을 부르려는 학생들은 전진족이 굳게 단합하여 싸우는 방법만이 조국의 해방을 이룩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본사기자 립 정 호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본사기자 김 명 훈

#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 마시령스키장 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

### 최후공격전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산세협한 마시령스키장건설을 또다시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위훈을 값높이 평가해주시고 마시령스키장을 세상에 돌도 없는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또다시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개인건설자들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다시한번 산악같이 일떠선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군인건설자들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건설지휘부와 여러 부대의 정치일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불려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식적으로, 화신적으로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조직들과 정치일꾼들은 공사장마다에서 정치사업을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공세적으로, 화신적으로 힘있게 벌리며 사회주의경쟁을 잘 조직하여 모든 군인건설자들이 김정애국주의로 교를 끓이며 마시령스키장건설전투에서 혁명적근본태, 일당백의 군인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지휘부 정치부에서는 정치사업의 총적방향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호소문과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는데로 정하고 그 작전과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건설지휘부 정치일꾼들인 윤학용, 유철호, 김범춘동무들은 자신들부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 내용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그에 기초하여 그 관철을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고있다.

공사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방도를 군인건설자들의 정신

력발동에서 찾은 그들은 정치사업을 공식적으로, 화신적으로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정치부에서는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

합진주, 김미영, 리정희, 한홍심동무를 비롯한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은 격전장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건설지휘부 정치부에서는 보도전도 특색있게 진행하고 있다.

조훈, 김철중, 최일훈, 리철원동무를 비롯한 기자들은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전투활동을 벌이고있으며 혁신의 소식을 즉시즉시 출판물들에 담아 소개전신하는 방법에도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정치부에서는 한인식, 리철남, 임철혁, 강철성동무를 비롯한 건

《최후결사전》과 같은 힘있는 표어를, 전투속보들이 곳곳에 세워져 정신이 번쩍 들게 하고 있다.

정치부에서는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의 역할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

합진주, 김미영, 리정희, 한홍심동무를 비롯한 방송선전차 방송원들은 격전장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건설지휘부 정치부에서는 보도전도 특색있게 진행하고 있다.

조훈, 김철중, 최일훈, 리철원동무를 비롯한 기자들은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전투활동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취재활동을 벌이고있으며 혁신의 소식을 즉시즉시 출판물들에 담아 소개전신하는 방법에도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정치부에서는 한인식, 리철남, 임철혁, 강철성동무를 비롯한 건

설치취부일꾼들의 사업을 적극 밀어붙여 그들이 공사작업과 지휘, 자재 및 물자보장사업을 선행시키고 공사를 빠른 속도로 추진시킬수 있게 하고있다.

건설에 참가한 여러 부대의 정치일꾼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서곡옥소속부대 정치부에서는 정치일꾼들의 혁명적투쟁정신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

조선인민군 서곡옥소속부대 정치부에서는 정치일꾼들의 혁명적투쟁정신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

조선인민군 서곡옥소속부대 정치부에서는 정치일꾼들의 혁명적투쟁정신을 최대로 높이고 있다.

부대정치부에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지도소식과 총공격적인 기상이 세차게 나타내지는 속에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이룩되고있는 혁신적인 성과소식을 제때에 알려주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 정치부에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공사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리고 있다.

조선인민군 김명호소속부대 정치부에서도 정치사업을 싸우는 군대맛이 나게 공식적으로, 화신적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거두고있다.

부대정치부의 사업에서 잘하고있는것은 군사복무나발을 총정과 위훈으로 빛내이는 과정에 특출한 공로를 세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유해로 드린 부대의 여러 군인들을 소개전하고 그들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것이다.

군인건설자들이 오가는 길에 그들이 거둔 투쟁성과를 사진과 함께 소개한 직관전물들을 만들어 게시하고 매일 그것을 보면서 하루사업을 총화하게 하고 있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와 리철훈소속부대, 김효남소속부대의 정치일꾼들도 정치사업을 공식적으로, 화신적으로 벌리며 군인건설자들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기 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 관철을 불려일으키는 정치일꾼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해 《마시령속도》창조의 승결을 끊임없이 높아가고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대기적, 대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 있다.

### 우리 군대가 제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시었다.

은 건설장에 수평과 전사사이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뜨겁게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합성을 터치는 군인들의 환호는 편이 아니라 《불타는 소원》을 부르는 합창으로 이어졌다.

열광적인 환호를 울리는 군인건설자들을 뜨겁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 레도록 손저어주시며 마시

### 미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마시령스키장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초, 중급주요로에 있는 휴식장정도를 료해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휴식장정도의 내부주의깊 게 돌아보시며 시공의 질을 높임에대하여 말씀하시고 산 끝의 건물형식에 맞게 장식용 화로도 설치해달라대하여 세 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건물의 로대에

### 잔디의 색깔에 대하여서도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이 일떠서는 마시령전역에는 정제하게 깔아내린 스키주 로들에 푸른 잔디가 정 성있게 심어져 그 모습이 불 수룩 희한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건설장에 모시고 동행 한 지휘관들은 적지 않은 면적의 스키주에 심어 져 푸르게 돌아간 잔디를 만조하게 바라 보고 고있었다. 그대 건설장에 펼 쳐진 모습을 기쁨속에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 레도록 손저어주시며 마시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조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마시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가 인민군대에 의하여 더욱 빛 나게 되었고 하시면서 려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고 자랑이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 레도록 손저어주시며 마시

나오시어 스키장의 전경을 부감하시다가 앞으로 스키장이 운영되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볼필수 있으니 료대 면적을 더 넓혀주어야 한다 고 뜨겁게 강조하시었다.

많은 사람들이 휴식장정 물을 다녀가지만 그 누구 게도 관심하지 못한 문제를 대변에 포착하시고 지적 해 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지휘관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최정비로 자랑나란 단의 서 다른 색깔을 대변에 포착하시었다.

여러가지 조건으로 하여 잔디의 색깔이 서로 차이난 다는 지휘관들의 이야기 들은 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스 키주로의 해발고를 료해하 시였다. 그러시고는 스키주 로해발고에 맞는 품종의 잔디를 심어 더욱 푸르게 해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 주시었다.



마시령스키장건설이 마감단계에 가까워질수록 공사장의 그늘에서나 창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날것이다.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천 연비위과 협한 산밭들을 깎아 내고 스키주로를 닦아놓은 놀라운 성과, 이것은 조선인민군정철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비롯한 마시령스키장건설장에 달려나온 우리의 미더운 인민군군인들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명 관철에서 이룩한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스키장건설에 동원된 부대 지휘관, 참모부들은 대담하고 용감이 작전과 능숙한 지휘로 공사과제를 대상별, 단계별로 강조건 수행하는 혁명적기공과 같은 수완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것 부대가 전투를 벌이는

##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장

조선인민군 정철소속부대에서

공사장에 가면 첫눈에 띄우는 말이 있다.

《조국! 우리를 지켜준다. 다시한번 백두산혁명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자!》. 이것은 그대로 이곳 군인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이며 기질이다. 지난 9월 부대앞에는 새로운 대상을 건설 할데 대한 공사과제가 맡겨졌다. 따져보니 방대한 작업량이였다. 모두가 방도를 놓고 모고하고 있을 때 부대의 지휘관 백영학 동무가 말하였다.

《단숨에!》의 구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우리 지휘관들부터 이번 전투에서 한걸음도 물러설수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달려들으면 이번 공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지휘관의 호소는 새 대상공사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의 심

장을 뜨겁게 담겨주었다.

다음날부터 온 부대가 기초과 기공사에 달려들었다. 지휘관들의 뒤를 따라 부대의 전투원들 모두가 떨쳐나섰다.

군인건설자들은 돌격전에 나선 용사마냥 정태와 함마를 억 세계 틀어쥐고 기초과기부터 공사실적을 높여나갔다.

붉은 기폭이 숲을 이룬 전투 현장에서 어깨에 질통을 지고 대오의 앞장서 달려가는 명철 리명호동무들을 비롯한 군 부대의 지휘관들, 철로도 성차 지 않아 마대를 메고 기온차게 달려가는 병사들, 그들속에는 맛 들이를 들고 달리는 부대의 간 호원, 방송원도 있었다.

전투는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며칠째 전투를 벌여온 군인

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이때 정치일 군인 최대김동무 가 돌아와 구간 에 붉은 기폭을 쫓아냈다. 《동 무들이! 붉은기를 보라. 붉은기 앞에 다진 맹세를 되새기자. 마시 령스키장건설은 우리 당이 펼친 거창한 애국사업이다. 조국의 재 부를 높여나가는에서 우리가 맡 은 임무의 책임을 다해가자.》

이에 호응하여 온 부대가 노래 《불타는 소원》을 부르며 달려 갔다. 그 대오속에는 어려울 때마다 병사들을 고무해주며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어준 김미영동무 도 있었고 동지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강타고 바쳐가는 녀병 사들과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에 서슴없이 뛰어드는 지휘관들의 열광도 있었다.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이들이 벌이는 방대한 건축물은 점차 자기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2천만 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

이렇게 소리높이 웨친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위대한 수평님의 품속에 안겨 힘 명가로 성장한 최희숙동무를 원수들은 끝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불굴의 이 정신앞에서 일제의 야 수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천인 공노한 이놈들은 공산주의자의 심장 은 어떤것인가를 본다고 하면서 최 희숙동무의 심장까지 도려냈다.

희숙동무의 첫가슴을 헤치고 심장 을 도려낸 이 인건백장들은 피를 손을 찔었으며 공포에 싸여 몸부림 을 쳤다.

슬기로는 량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고결한 마음, 조국강산에 해방의 불 을 안아주기 위한 혁명적신념이 불 화산처럼 타버리는 조선의 땅이 간 직한 그 불은 심장앞에서 원수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이렇듯 혁명가의 심장이 조국과 민족, 혁명동지들을 위해 고동치지만 반역자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자신만 을 위해 고동쳤던것이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최 희숙동무의 인생의 총화이기도 한 이 말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었다. 그것 은 그말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리성을 확인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 는 말이며 혁명적계가 강한 투사들 만이 할수 있는 명언이었던기 때문 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혁명적관념의 상징인 줄은 금언으로 되었으며 지금은 최 희숙동무가 그토록 바라던 해방된 조국에서 사회주의시장관리를 건설 하고있다.

##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일념안고

조선인민군 리철훈소속부대에서

조선인민군 리철훈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년간 스키주요로에 있는 휴식장을 비롯한 여러 건물마감공사를 맡아하고 있다.

산기슭에 있는 초, 중급주요로 주변에 휴식장으로 스키주요로 주변에 휴식장을 거쳐 대 화봉정에서 일떠선 휴식장까지의 거리는 수십리에 달한다.

건설대상이 그처럼 여러 구획 이적으로 조직하여 로력과 자 재, 자금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건설의 속도와 질을 철저히 보 장하며 창조된 건설물들이 실제 적으로 나라에 이익을 주고 인 민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하여 야 합니다.》

마시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을 타고앉아 공사를 지휘하고 밤에는 설계도면을 펴놓고 공명벽 에 따르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탐구하면서 마감공사를 손색없이 하기 위해 사색을 아끼지 않았다.

초, 중급주요로 휴식장지공 방을 완성할 때 새로운 철관기공방 법을 받아들이고 내부공사때에는 직접마감시공에 의한 표면장시공 법도 창안하여 건물의 미확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전한 사실은 천 년책임, 만년보증의 구호를 외친 신하는 이곳 군인건설자들의 애국 의 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단 0.001mm의 편차도 없지.

이것이 부대군인건설자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소중한 마음이다. 하기에 부대아래 리명호 동무의 군인건설자들은 한

대의 반간을 세우고 한장의 타 일을 불여도 안팎으로 손색없는 건축물로 완성하기 위해 높은 기준과 뜨거운 애국성을 적극 발휘하고있다.

산정에서의 세찬 비바람에 의 해 전기설비에 고장이 생겨 정 지가 되었을 때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휴식도 미루어가며 야 간전투를 벌인 현충소속부대 의 전투원들과 미장전투자 한 창일 때에는 공사장의 승결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군인건설자 들도 모두가 부대가 자랑하는 미려 한 휴식장들이다.

말은 전투목표를 수행하는 바 뮌 속에서도 사도감시소전물을 비롯한 다른 단위가 추진하는 대 상공사도 적극 도와준 이들의 헌 신적인 일념은 지금 온 건설장 의 남다른 자양으로 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 2 면에서 계속

희숙동무는 심한 갈증으로 전신 을 태우며 쓰러져있었다. 그러나 그는 원수님들의 조롱을 들으며 때 거머쥔 입술을 깨물고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그는 입에서 불을 토하듯 말했다.

《공산당원도 사람이야. 구경할것 없다. 그러나 공산당원은 조국과 인 민을 위해 일제를 타도하려는 애국 자다. 애국자의 말을 들으려거든 모 어라.》

조선은 해방될것이다. 조국은 다시 없이 해방되고 조선사람은 다시 조 국을 찾게 될것이다. 너희들은 조국 을 배반하고 침략자 일제놈들의 개 노릇을 하지만 우리 유격대원들과 인 민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을 다시 찾아가말라.》

놈들은 당황하여 희숙동무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을 멈추게 할수는 없었다. 총 갈에 쫓리면서도 희숙동무의 열변은 더욱 절절히 사람들의 심장을 찔렀다.

《너희들은 일제를 믿지만 ... 일 제는 이제 ... 얼마 안가서 망한다. 우리 유격대원의 눈에는 그것이 ... 벌써 똑똑히 보이오이다.》

이렇게 되자 놈들은 군중을 억지 로 해산시켰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놈들은 희숙동 무에게 유격대의 비밀을 대라고 강 요하였다.

《너는 체포되었다. 너희들 비밀을 말하면 살려줄테다.》

적들은 갖은 간언리설로 혹은 위 협으로 벌써 몇몇인자 모르게 이 말 을 되였다.

그러나 희숙동무는 조용히 눈을 감

고있었다.

《무사히 빠져나갔을가. 그들은 놈 들의 포위를 돌파했을것이다. 어떤 동무들이야.》

이렇게 그는 전우들을 간절히 생 각했고 그의 마음은 전우들과 함께 위대한 수평님께서 계시는 사령부로 달려갔다.

위대한 수평님의 슬하에서 전우들 과 함께 싸우던 지난날이 꿈같이 이 행복했어있었다는 생각이 그의 눈 을 찔렀다.

우리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승리를 내다볼줄 알아야 합니다. 혁명 이 끝까지 끝하지 않고 싸울수 있 습니다.

위대한 수평님의 이 말씀을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한번 외워보았다.

그리고 고향의 비밀을 고수하기 위 하여 저기는 끝까지 싸워야 하며 이 제 더 혹독하게 타격을 적들의 고문 앞에서 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의 를 굳게 다지였다.

희숙동무는 갇힌 눈을 떴다. 그 는 저우로만 원수들의 얼굴을 쓰어 보았다. 원수놈들은 입을 실룩거리며 《그대 잘 생각했느냐?》 하고 또 심문을 시작해보았다.》

《잘 생각해보았다.》 희숙동무는 조용하나 강인한 목소리로 대답 했다.

《그때, 그때 대답해라.》

《무엇을 대답하면 말이나?》

《우리 혁명에서 빨찌산의 비밀 을 요구하고있단 말이다.》

《그러면 내놈들의 앞잡이들을 보 고나 지킬테다. 유격대원인 내가 어떻게 너의 개들이나 알 말을 알아 들으란 말이나.》

이리하여 희숙동무는 다시 고문실 로 끌려들어갔다. 놈들은 달려들어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2천만 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

이렇게 소리높이 웨친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위대한 수평님의 품속에 안겨 힘 명가로 성장한 최희숙동무를 원수들은 끝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불굴의 이 정신앞에서 일제의 야 수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천인 공노한 이놈들은 공산주의자의 심장 은 어떤것인가를 본다고 하면서 최 희숙동무의 심장까지 도려냈다.

희숙동무의 첫가슴을 헤치고 심장 을 도려낸 이 인건백장들은 피를 손을 찔었으며 공포에 싸여 몸부림 을 쳤다.

슬기로는 량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고결한 마음, 조국강산에 해방의 불 을 안아주기 위한 혁명적신념이 불 화산처럼 타버리는 조선의 땅이 간 직한 그 불은 심장앞에서 원수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이렇듯 혁명가의 심장이 조국과 민족, 혁명동지들을 위해 고동치지만 반역자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자신만 을 위해 고동쳤던것이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최 희숙동무의 인생의 총화이기도 한 이 말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었다. 그것 은 그말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리성을 확인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 는 말이며 혁명적계가 강한 투사들 만이 할수 있는 명언이었던기 때문 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혁명적관념의 상징인 줄은 금언으로 되었으며 지금은 최 희숙동무가 그토록 바라던 해방된 조국에서 사회주의시장관리를 건설 하고있다.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2천만 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그날이 보인다.》

이렇게 소리높이 웨친 그는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위대한 수평님의 품속에 안겨 힘 명가로 성장한 최희숙동무를 원수들은 끝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불굴의 이 정신앞에서 일제의 야 수들은 공포에 떨었다. 그리고 천인 공노한 이놈들은 공산주의자의 심장 은 어떤것인가를 본다고 하면서 최 희숙동무의 심장까지 도려냈다.

희숙동무의 첫가슴을 헤치고 심장 을 도려낸 이 인건백장들은 피를 손을 찔었으며 공포에 싸여 몸부림 을 쳤다.

슬기로는 량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고결한 마음, 조국강산에 해방의 불 을 안아주기 위한 혁명적신념이 불 화산처럼 타버리는 조선의 땅이 간 직한 그 불은 심장앞에서 원수들은 완전히 넋을 잃었다.

이렇듯 혁명가의 심장이 조국과 민족, 혁명동지들을 위해 고동치지만 반역자의 심장은 언제나 자기자신만 을 위해 고동쳤던것이다.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최 희숙동무의 인생의 총화이기도 한 이 말에서 우리는 큰 힘을 얻었다. 그것 은 그말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리성을 확인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 는 말이며 혁명적계가 강한 투사들 만이 할수 있는 명언이었던기 때문 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혁명적관념의 상징인 줄은 금언으로 되었으며 지금은 최 희숙동무가 그토록 바라던 해방된 조국에서 사회주의시장관리를 건설 하고있다.

## 제힘을 믿고 일떠선 보람

중강대지종축장 종업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축산업이 세계대생산에서 당의 축산 정책을 높이 받들고 세계대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축산업이 세계대생산에서 도적 일모범단위로 되고있는데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지닌 자력경쟁의 투쟁기풍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지베인으로 사업하게 된 김희관동무는 종축장을 당의 축산정책 관철의 본보기단위로 만들 결심을 하고 종업원들을 불러 일었다. 김희관동무는 먼저 물건을 원만히 풀기 위한 일부러 내밀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축장주변에서 수질이 좋은 물원천을 찾았 것이였다. 지베인은 강이 5나더 는 원형공크리터판을 한개만 내내 놓는 방법으로 압록계의 물을 끌어들인 다음 양수기로 퍼올릴것을 제 기하였다. 지베인의 의견은 종업원들 의 지지를 받았다.

김희관동무와 종업원들은 자체로 세멘트와 철근을 해결하면서 10여 개가 되는 원형공크리터판을 만들어 땅속에 내려놓기로 하였다. 축산작 업을 벌여 물원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물과구를 얻어놓았다. 수질이 좋은 물을 퍼올려 쓰게 되니 수의방 역에도 좋았고 돼지사양관리공들의 열도 높혀졌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생활에도 좋았다. 이 사실을 통하여 종업원들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으며 자력경쟁만이 살길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불어넣어야 하겠습니다.》

축산업이 세계대생산에서 당의 축산 정책을 높이 받들고 세계대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축산업이 세계대생산에서 도적 일모범단위로 되고있는데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지닌 자력경쟁의 투쟁기풍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지베인으로 사업하게 된 김희관동무는 종축장을 당의 축산정책 관철의 본보기단위로 만들 결심을 하고 종업원들을 불러 일었다. 김희관동무는 먼저 물건을 원만히 풀기 위한 일부러 내밀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종축장주변에서 수질이 좋은 물원천을 찾았 것이였다. 지베인은 강이 5나더 는 원형공크리터판을 한개만 내내 놓는 방법으로 압록계의 물을 끌어들인 다음 양수기로 퍼올릴것을 제 기하였다. 지베인의 의견은 종업원들 의 지지를 받았다.

김희관동무와 종업원들은 자체로 세멘트와 철근을 해결하면서 10여 개가 되는 원형공크리터판을 만들어 땅속에 내려놓기로 하였다. 축산작 업을 벌여 물원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물과구를 얻어놓았다. 수질이 좋은 물을 퍼올려 쓰게 되니 수의방 역에도 좋았고 돼지사양관리공들의 열도 높혀졌다. 그리고 종업원들의 생활에도 좋았다. 이 사실을 통하여 종업원들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몇몇천 군의 일꾼들은 종축장에 강 계제지공장의 우량물종종축사태지를 보내주었다. 종축장에서는 과학적인 종축계제를 세워놓고 해마다 수백마 리의 새끼돼지를 생산하여 군인의 협 동농장들에 보내주고있다. 종축장에 생산되는 새끼돼지들은 종축장에 높고 생활력이 강하고 먹성이 좋은 뿐 아니라 새끼를 많이 낳아 협동농 장들에서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종축장의 일꾼들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십정보의 먹이작물배 배관리와 돼지사양관리의 물질기술 적도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해 분발하였다. 종축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산을 낀 곳에서 산을 잘리 용하여 한다고 하는 산을 잘리 는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해마다 자, 도로리를 비롯한 많은 산벌매와 여가까지 산나물들을 거두어들이 종 축장의 물질기술적도대를 튼튼히 꾸 리는데 필요한 큰 밑천을 마련하였 다.

결과 물결기재들의 만가동으로 거 룠, 먹이, 건설자재운반에서 혁신이 일어났고 먹이작물비배관리의 기계 화가 실현되어 종업원들의 로동생활 은 더욱 풍요워졌다.

종축장에서는 효능높은 치료약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면서 새끼돼지 들을 튼튼히 키워내었다.

종축장의 일꾼들은 염소, 소, 토 기, 계사니를 비롯한 품목은집중도 많이 길러 종업원들의 생활에 큰 도 움을 주고있다.

7년전에 비해 이미돼지마리수는 10배이상으로 늘어났다. 특기하자 동 세 문



# 북침전쟁기구는 지체없이 해체되어야 한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가 조작된 때로부터 35년이 되었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의 조작은 남조선에 대한 영구감정과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미국과 남조선통치체들의 위험한 공모결약의 산물이었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 이후 미군부대를 남조선에서 철수시킬데 대한 내외의 압력이 고조되자 미국은 남조선감정 미군을 그대로 둘수 있는 《연합군사령부》를 조작해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남조선감정 미군을 《유엔군》으로부터 미국남조선 《호상방위조약》에 따라 파견된 무력으로 둔갑시켜 저들의 남조선감정을 합법화, 영구화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괴통치체들은 남조선에 미국의 군사기지로 계속 내맡기고 상진의 대조선침략정책을 충실히 집행하는 대가로 권력을 유지하고 저들의 불순한 동족대결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연합군사령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적과 북침전쟁도발을 위한 범죄적인 군사기구이다. 미국은 《연합군사령부》를 통해 피괴통치체들을 군사적종속체계에 더욱 철저히 엮어내고 핵전쟁도발책동을 강화하였다. 미국은 《연합군사령부》를 비롯한 남조선피괴체들에 대한 작전지휘권과 지배권을 행사하며 피괴통치체들을 북침전쟁도발에로 내몰아왔다.

지난 수십년동안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는 북침전쟁공격을 노린 각종 전쟁계획들을 작성 및 모호완성하고 그것을 숙달, 완성하기 위한 군사언습과 무력증강 등을 주관하였다. 이 침략기구에 의해 미제의 핵전쟁장비들이 남조선에 대량적으로 투입되어 북침전쟁장비난소등을 일으키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는 항시적으로 격화되고

핵전쟁발발의 위험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올해에만도 미제와 피괴호전광들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매일 같이 광범위적으로 벌여놓음으로써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짙게 드리우게 하였다. 얼마전에도 내외호전광들은 그 무선 《도발》과 《위협》을 운운하며 미 핵행공포함 《조지 워싱턴》호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광범위적으로 벌여놓은데 이어 《호국》의 간판을 단 전쟁불장난소동과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맥스 씨더》연습을 벌여왔다.

미제가 선제타격대상까지 로골적으로 공개하며 웅근 하나의 거대한 핵전쟁계획을 치르려고 남몰래 한 무력을 전개하여 광란적인 침략전쟁연습을 공공연히 벌여놓고 있는 것은 오직 미국의 군사적감각하에 있는 남조선밖에 없다. 하여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조선반도에는 평화를 담보하는 제도적장치가 구축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민족은 항시적인 핵전쟁의 위협속에 살아가고있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야말로 우리 민족에게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화근이다.

남조선미국 《연합군사령부》와 같은 침략전쟁기구는 즉시 해체되어야 하며 미국의 남조선감정과 지배는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 이것은 외세에 의해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짓밟히고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피괴체들은 북남관계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민족의 저항과 시대의 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고있다.

남조선을 북침전쟁도발의 전초기지, 세계제국현의 교두보로 영구히 틀어쥐고 피괴호전광들을 총알받이로 내

몰아 대조선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기도는 남을 따라 더욱 로골화되고 악랄해지고있다. 남조선피괴체들은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들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재연기를 다스림 애걸하고있으며 미국은 피괴통치체 《대응능력》 등을 평가한 기초우에서 그 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떠들고있다. 상진과 주주의 이 공공자들에게는 피괴체들 북침전쟁의 하수인으로, 남조선을 여전히 아시아태평양영지배실현의 전초기지로서 써먹으려는 미국의 교활한 타산과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피괴체들의 흉심이 잘려왔다.

스처치날수 없는 것은 미국과 남조선 피괴호전광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명목으로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는 대신 새로운 지휘기구를 내세우고 있는것이다. 피괴호전광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부활시켜 미군과의 연합지휘체계를 개편, 강화하고 군사적통합기구를 신설하려 하고있으며 미국의 최신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전쟁준비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피괴체당이 떠는 것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군사적존재를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우리를 계속 위협하는 동시에 상진을 등에 업고 공수에 배긴 북침총계를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자라는 것이다. 외세의 추악한 앞잡이가 되어 민족의 이익을 강그리 팔아먹으며 동족을 해치려고 미쳐달라는 피괴체당대의 화려행을 버린 낫한 민족운동행위를 하고 조선반도의 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공민들의 평화를 실현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자면 남조선에서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과 대결하는 침미사태행위가 끝장나야 한다.

《연합군사령부》의 해체를 구실로 새로운 지휘기구를 내세우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백지화하고 내외 여론을 속이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미국은 명칭 등을 바꾸고 사형판적을 피

괴군이 말하면 마치 해결될것처럼 떠들고있지만 정보와 작전, 전술지휘체계를 여전히 미군이 틀어쥐고있기때문에 아무 소용없다. 특히 미군이 공군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 않고 군단, 사단급군술체대훈련, 대규모강습상륙작전 등을 여전히 지휘하기로 합의한것을 놓고서도 《전시작전통제권전환》 놀음이 형식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알수있다.

지난 10월에 진행된 제45차 남조선미국 《연례안보회의》에서는 《정전협정(《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 한다는 이른바 《공동성명》이라는것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현 정전상태를 유지하면서 북침전쟁책동을 계속 이어가려는 미국과 피괴체당의 호전적기도와 남조선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려도 《유엔군사령부》를 부활시켜 남조선감정을 영구화하려는 미국의 속심이 그대로 드러나있다. 실제로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진행되는 《키 리졸브》, 《독수리》를 비롯한 합동군사연습들에 《유엔군사령부》 성원군들을 참가시켜 유령무실체인 이 기구를 북침을 위한 연합작전기구로 전환시키려 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온상이며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 파괴하는 화근을 만들어놓겠다는것이 나 다름이 없다. 북침전쟁기구의 존재는 그 무엇보다도써도 합리화될수 없으며 미국의 남조선감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 없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물러가면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쟁발원지가 없어지게 될것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것이다.

해내의 온 겨레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피괴당국의 침미사태와 반공화국대결책동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김 현 철

# 남조선파쇼당국의 진보정당말살책동을 단죄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 담화 발표

차상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의장이 1일 《남조선피괴체당의 진보정당과 애국단체들에 대한 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금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진보적인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파쇼적인 괴변이 되어 날뛰고있는 남조선피괴보수세력에 대한 단죄하는 중요하고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총복》의 감투를 끼고 남조선에 침투하려고 발악하는 피괴체당의 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총복》의 감투를 끼고 남조선에 침투하려고 발악하는 피괴체당의 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에 《총복》의 감투를 끼고 남조선에 침투하려고 발악하는 피괴체당의 말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리자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 영국단체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침략전쟁연습 규탄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주제사영언론연구소, 조선과의 친선협회 영국지부가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침략전쟁연습을 규탄하여 10월 2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침략전쟁연습은 박근해체당의 반공화국책동이 극도에 달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침략전쟁연습은 남조선이 미국과 《맞춤형억제전략》이라는 전쟁장악까지 저승과 조선에 대한 핵선제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피괴보수세력은 통합진보당만이 아니라 합법적으로만 존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진보적 언론인 《자주민주》에도 《총복》 따위를 붙여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획책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현실은 저들의 눈에 거슬리고 독재체제구축에 대항하면 무조건 《총복》, 《친북》, 《리적》,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면서 침미사태와 반공화국대결에 광분하고있는 피괴보수세력이야말로 선입입제자들의 파쇼적기질을 그대로 넘겨받은 철저한 파쇼세력들이고 대결되지 못할면서 자기들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하면서 담화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침미대국, 민족적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남조선피괴체당의

책동을 단호히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선군으로 존엄높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선의 인민들과 어깨걸고 함께 나아가겠다.

세계 진보적인인민들이 미국과 남조선피괴체들의 북침전쟁연습을 심히 파피되고 정세는 전쟁접경에로 치달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떠드는 《평화》 타령의 허위성구와 정대로 반하지 않는 미제의 침략적본성을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은 조선을 반대하는 온갖 전쟁

【조선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조선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피괴체당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두둔하고 인정해나섬으로써 온 겨레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얼마전 미국을 행한 피괴체외대 안보실장 김강수는 《집단적자위권은 유엔헌장에도 나와있는 보류가로서 갖가지 법적적인 권리를 하나》라고 떠벌이면서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사실상의 지지를 표시하였다. 피괴체외장 윤병택 역시 《국회》의 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과거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에 의해 여러 국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느니, 《근처원에서 접근》이니 뭐니 하며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옹인하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피괴체당이

《주권의식은 어디에 팔아먹었는지 개판스러울뿐》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규탄해나서고있으며 지어 《새누리당》을 비롯한 집권층내부에서까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대해 인정할수 없다》. 그 하면서 당국이 본래의 집단적자위권을 명백히 구분할수 없는 목숨이 울러나오고있다.

피괴체당이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공모결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은 일본 공권주의부활을 옹호하고 해외침략의 길을 열어주는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며 미국, 일본, 남조선의 3국군사동맹에 기초한 북침전쟁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매우 위험한 전쟁책동이다.

지금 온 겨레와 전세계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를 미국이 인정한데 대해 《제2의 라트-가즈라협정》으로 단죄

규탄하고있다. 그것은 실로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되살리려는 위험한 침략책동결락이다.

이번에 피괴체당이 미국에 추종하여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동조해나섬으로써 결국 미국, 일본의 침략전쟁음모에 공모도로 가담하는 수치스러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우리 민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일본의 파거침략사와 평토 방탈행위에 대해서는 묵인하면서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책동에 서슴없이 가담하는 피괴체당의 처사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반민족적행위이다.

피괴체당은 저들의 죄행을 감싸보려고 그 무슨 《조선반도의 주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하리다느니 뭐니 하면서 조건부를 내거는척 하고있지만 그것은 내외여론의

주제102(2013)년 11월 7일 평 양

# 《대선개입사건》에 대한

남조선에서 지난해에 진행된 《대통령선거》가 《새누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피괴체정보원과 피괴군인이사령부, 모호총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총발동되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특대권력형성 《선거》라는 것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

이로 하여 사상 최악의 판권부정 《선거》, 불법무법의 정치쿠데타로 《대통령》 자리를 따낸 저들의 추악한 정체가 날날이 폭로되는데 비바람은 피괴보수세력의 사건의 진상을 더더욱 드러내어주고 있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특별수사조를 책임졌던 퍼주지방검찰청 윤석열의 해임고소 그런 사실을 알리는것이 시치미를 떼다. 그러면서 그가 상급의 지지도 없이 제멋대로 처신하였다는 여론을 내뿜으면서 그를 특별수사조장직에서 내몰고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발생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단독으로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하였다. 그의 직무배제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현 전진작과 《새누리당》, 검찰의 공모결락의 산물이라는것이 여론의 일치한 분석이다.

그는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줄곧 청와대와 《새누리당》, 정보원으로부터 눈에 내 거시로 공격과 관련하여 남조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다. 피괴체정당국은 그가 정보원직원을 허가없이 체포하는 등 공중정를 잃었기때문이며 그의 직무배제는 《어쨌든 그것은 선책》이었다고 변명하였지만 그것은 구실이 지나치다 못한다. 사실 그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각방으로 방패하고 사건내막을 은은히 시키기 위해 미처남편의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의 배후주종을 받는 검찰우두머리들의 음모책동의 희생물이다.

그가 특별수사조장직에서 해임된 이유라는것을 보아도 그렇다. 지난 10월 15일 윤석열은

# 로골적인 수사 방해책동

치부되어왔다 한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보원의 심리전단원들이 5만 6 000여건의 모략공문을 인터넷에 대량적으로 투포 시킨 사실 등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과 사건수사방해를 위한 검찰내부와 외부세력의 압력에 대해 날날이 폭로하였다.

이렇게 되자 악에 받친 《새누리당》 폐들은 그에 대해 《정치적검사》라느니, 《적권탐용의 대표적실례》라느니, 《항명》이라느니 하면서 그를 집단적으로 모해하였다. 지어 사실과 어긋나게 그의 경력까지 격고해 《헌로까지》를 붙여 그의 수사활동에 정치적성격을 부여하려고 날뛰었다.

윤석열뿐만 아니라, 《정보원대선개입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전 검찰총장 채동욱의 사퇴사건도 그의 수사전선에 불안감을 느낀 청와대와 《새누리당》 폐거리들의 끈질긴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것이 폭로되었다.

다른 한가지 사실을 보자. 최근 남조선에서 전교조가 피괴당국에 의해 합법적인 로조지위를 상실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폐거리들은 전교조에 해고된 로조인 9명이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진상은 절대로 감출수 없으며 불법무법의 《선거》 부정행위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한 범죄적내막을 결코 가려내지 못한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이 피괴보수세력의 망동을 격분해 넘쳐 단죄시켜야 한다. 《선거》 무효, 특검실시, 탄핵을 주장해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본사기자 장윤 남

# 피괴호전광들의 대규모상륙훈련소동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피괴호전광들이 6일부터 8 일간에 걸쳐 경상북도 포항일대와 대규모합동상륙훈련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남조선의 카톨릭교 교인들이 10월 30일 서울의 광화문주변에서 시국기도회를 가지고 피괴체권력기관의 선거개입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지난 선거때

# 범죄자들을 처벌할것을 주장

저지른 범죄를 감추려 하면서 이를 규탄하는 사람들을 《총복》으로 몰아 탄압하는 막근책을 용납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사태의 명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외부 압력 없이 독립적인 수사할수 있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 하나를 통해 얻은 둘

금야종이공장의 기술개편과정을 놓고

하다면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군의 일군들이 위생종이 생산공정을 꾸리면서 증시한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종이생산공정이 갖추어지는데 맞게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었기였다. 위생종이 나 필기종이뿐 아니라 위생종이 종이를 생산하는데 원료에 대한 조미분쇄, 삶기, 세척, 선별, 교반과 같은 위생종이생산의 선행공정들을 필기종이를 비롯한 다른 종이생산의 뒤공정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놓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위생종이생산보다 보강하면서 다른 종이의 절도형성 개선할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였다.

군의 책임일군들은 여러차례 협의의결을 열고 위생종이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는 문제, 그 앞

# 돈벌이에 한장한 남조선의 공공운수로조

남조선의 공공운수로조 의로련대 서울대학교평면분회와 열마진 서울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병원을 기발수단으로 리용하는 대학교평면원칙의 처사를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서울대학교평면원이 돈벌이를 위해 비법행위들을 일삼고있는데 대해 비난하였다. 그들은 병원실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공정과 유익적으로 결합시켜놓으시라

군당위원회는 지도원에 지금 공정의 일군들과 기술자, 노동자들은 종이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중단없이 내걸고있다.

비록 수고마련이라고 하여도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얻기 위해 머리를 쓰고 이악하게 실천하는 금야군 일군들의 사업기공은 본받을만 하다. 하나는 병행 얻은 둘, 이런 이야기는 종이공장뿐 아니라 군단의 다른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들을수 있다.

그속에 비록 일군들의 일분과 함께 이곳 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의 페이스이 더욱 기대된다. 본사기자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  
순천구두공장에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3대혁명소조원들이라고 정을 담아 부르는 등무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 책임자 양세혁 등무와 소조원들인 현은철, 한규철, 장영주, 오은희등무들이 있다. 초급당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압연작장 작업장의 로동조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작업장의 로동환경을 개선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공장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사업에도 적극 참가하여 많은 기술적문제를 풀고있다. 오늘날 이들은 3대혁명전기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보답할 기술혁신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다. 로동통신장 정숙

# 군소재지가

위대한 평등과 자립을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평양시와 모든 도시, 군들, 온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어 버리자》

군당위원회는 지도원에 군의 일군들은 인민들에게 명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을 통해 크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도시건설, 도시경영사업소들 비롯한 군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끝없는 청년들을 선발하여 일군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읍지건설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떠맡아주었다.

군소재지들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땅을 흘려내려 주어야 하는 마음을 안고 펼쳐나 삼포장에서 해마다 많은 땅의 산골을 채취하여 거울이 된 산골에서 건설용 돌나무를 생산하면서 건설공사를 진행해나갔다. 군소재지를

# 군소재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최근 몇몇동원에 군소재지의 모습이 달라져 변모되었다.

민중적형식으로 건설한 2층짜리 방람국수집과 군인민병원이 현대적미감이 느껴 새로 일떠섰다.

한중량, 리활실, 미용실을 갖춘 은덕원이 개건보수되고 리관도 잘 꾸려졌다. 인민들이 즐겨찾는 직매점, 공업품상점, 견제상점을 비롯한 상업봉사인들의 내외부개건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 색다른 색깔의 의복들에 여러가지 봉직의 타일을 조화롭게 붙여 거리의 모습은 더욱 환해졌다.

군소재지거리에 화대들이 특색있게 세워졌고 곳곳에 유희 오락시설들을 갖춘 공원, 휴식터들이 꾸려졌다. 삼포강기슭에는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로라스크레타지드 유희터가 건설되었다.

군소재지들이 도로망공장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천히 보장해 주고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하며 콘크리트포장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하였다.

군의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민들을 다져가신 지 15년이 지나는 다음에도 현대적인 체육관과 물놀이장을 새로 일떠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특급기자

